



국무위원들과 오찬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오찬 간담회가 열린 청와대 인왕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편안하게 새 정부에 이어져야 할 것과 개선돼야 할 많은 것들을 조언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의회, 누리 국비부담 · 고교무상교육 환영

전북도의회 교육위 의원들은 26일 누리과정 예산 국비 부담과 고교무상교육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수년째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국비 지원과 잘못된 국가정책을 신속하게 바로잡는 새정부의 방침"을 도의회 의원들은 교육가족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그동안 박근혜 정권은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공약해 놓고도 시행령만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전가했다"며, 그 결과 "지방교육재정은 빛이 크게 늘어났고, 각종 학교 시설개선 사업들은 지체되기 일쑤였다"고 비판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교육계와 보육계의 갈등과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들의 고통은 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면서 "새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국비부담 결정으로 그동안 쌓여온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국민으로부터 중앙정권이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권의 핵심 교육공약 중 하나였던 '고교 무상교육' 까지 문재인 정권이 즉각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적극 환영했다. /김진성 기자

“차, 탄핵 후에도 특수 활동비 35억 써”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마지막 나가는 날까지 70일 동안 하루 5000만원씩 썼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기 전까지 70일 동안 35억원의 특수 활동비를 썼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난 26일 YTN라디오 '신설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그동안 숨어서 부정하게 사용됐던 특수활동비가 정말 많았다”며 “개

인의 사적 생활비라든가 해외에서 가족들 비용, 유흥비 이런 부분까지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특수 활동비로 부정하게 사용됐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꼭 필요한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은 필요하다”며 “과거 대통령 시절 특수활동비가 계속 늘어오는 추세였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이 돼 마지막 나가는 날까지 70일 동안 35억원의

특수 활동비를 썼다고 한다”며 “하루에 5000만원씩 국민 세금이 사용된 것이다. 꼭 써야 할 비용은 당연히 써야겠지만 이런 식의 잘못된 관행들은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예산집행을 맡은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26일 브리핑에서 올해 비서실 특수 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으로 총 161억여원이 편성됐으며 현재 35억원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돼 지난 3월 12일 청와대 떠날 때까지 70일 동안 35억원을 사용한 셈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상태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30여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은 대통령 없는 청와대가 특수 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靑 “경총, 정부 일자리정책 심각히 오독”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 文, 유감 표명”

청와대는 지난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비판한 것에 대해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총의 주장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심각하게 오독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전날 포럼에서 “정부가 획일적으로(비정규직을) ‘좋다, 나쁘다’, ‘된다, 안 된다’ 식의 이분법적 접근을 하는 것은 갈등만 부추긴다”며 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부회장의 어제 발언은 마치 정부가 민간기업에 일방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강요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정책이든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정부와 문 대통령은 정책소통을 위한 마음 열고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다만 어제 김 부회장의 발언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곡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현실적으로도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이 선행돼야 제대로 해결가능한 문제”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는 공공부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적극적인 모범을 보여서 안전관리·청소·경비 등 필수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공공부문 일자리를 마중물로 해 이후 합리적 절차를 통해 민간기업으로 정착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와 현실은 국민 갈등의 주요원인 중 하나”라며 “청년은 일자리가 없고, 장년 일자리는 불안하다. 노년은 안정된 일자리가 없어 빈곤에 빠져 있다”며 “경총 역시 일자리 문제의 당사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에서 문 대통령은 경총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노회찬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하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에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항목을 전면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가 재정지출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의 특수활동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표에 따르면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연간 약 86억원 규모다. 세부항목별 예산 규모와 지출 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각각 매달 5,000만원과 4,000만원 정도를 쓴다. 각 상임위원장도 1,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시스



세월호 휴대전화 자료 복원… 증거 자료 활용

2대 데이터 분석 · 11대 추출 중 침몰 당일 10시1분께 최종 작동

육상에 거처된 세월호 선체에서 수습된 일부 휴대전화의 자료(데이터)가 복원됐다. 데이터 복원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침수 시각과 이동 경로를 밝히는 증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는 26일 오전 전남 목포신항만 선조위 회의장에서 제1차 소위원회회를 열었다. 선조위는 회의에 앞서 민간업체에서 분석한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를 공개하고 휴대전화 2대의 전화번호부, 통화목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사진, 영상, 음성 등

데이터를 복구했다고 밝혔다. 데이터가 복원된 휴대전화 기종은 LG-F180L과 KM-S330다. 분석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이뤄졌다. KM-S330 기종의 경우 세월호 침몰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오전 10시1분께 최종 정상 작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조위는 세월호 선체 내 KM-S330 기종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구역의 침수 시각을 추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KM-S330 기종 사용자는 2014년 4월16일 오전 9시29분까지 메시지를 확인했고, 오전 9시30분 이후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로 미뤄 휴대전화 사용자가 오전 9시30분께 휴대폰을 분실했거나 전화를 두고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선

조위는 분석했다. 최종 수신 문자메시지(4월16일 오전 9시 40분~오전 10시1분)에는 ‘꼭 연락해야돼’ ‘해경이 경비정 투입했데, 00아 죽으면 안 돼 꼭 살아있어야돼’ ‘00야 헬기타어?’ ‘나왔어?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라도 연락 해줘’ 라는 내용이 남겨져 있었다. 현재 선조위는 휴대전화 15대 중 11대의 데이터를 추출하고 있으며, 2대는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다. 선조위는 휴대전화 데이터 복원이 증거 가치가 있다고 보고, 복원·분석 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선조위는 지난 16일 브리핑을 갖고 “세월호에서 나온 총 77점의 기기 중 휴대전화는 45대다. 이 중 15대를 복구 분석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

Advertisement for Jeonju, featuring a scenic view of the city and a couple taking a selfie. Text includes: '전주, 한눈에 반하다', '국립순창자연휴양림', '국립순창자연휴양림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